

FIP-2009-0007 (통권 제131호, 2009. 5. 18)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 주장에 대한 보고서

ISSUE
PAPER

Contents

<요 약>	3
1. 최근 사내유보금 활용 주장 내용	6
2. 사내유보금 활용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6
1) 사내유보금 현황	6
2) 사내유보금 활용 애로요인	9
3. 사내유보금 활용 주장에 대한 입장	16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금융조세팀 류성원 과장과 강호성 선임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6336-0518 FAX : 6234-5288 E-mail : won@fki.or.kr

- 최근 언론, 정치권, 노동계 등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현금이 아니며, 국내 상장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의 80% 이상을 설비투자 등으로 기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상장사들은 '08년 말 현재 418.6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343.5조원을 이미 사용 중
- 사내유보금 중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자산의 경우도 기업이 통상 원재료·부품 구입, 재고관리, 인건비 지급, 차입금 상환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임
 - 2008년 말 현재 국내 상장사의 현금성자산은 약 75.2조원으로, 전체 사내유보금(418.6조)의 18% 수준
 - '08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차입금 규모가 현금성 자산보다 1.25배 많은 94조원에 이르고, 이중 1년 내 갚아야할 단기차입금이 57.1조원에 달함
- 수익 감소, 매출채권 회수 곤란 등으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및 단기 지급 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저하되고 있음
 - '08.1~9월중 제조업의 영업활동 현금수입은 당기순이익 감소,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감소
 -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으로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08.9월 57.1%로 전년동기대비 30.4%포인트 하락
- 특히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상장 법인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07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07년 대비 2.1% 줄어들었으며, 순이익은 무려 40.9% 감소
 - '08년 10대 그룹 계열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8.8%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전년대비 18.9% 감소
- 경기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자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하락함

- '08년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이자비용은 총 9.8조원으로 전년동기 7.9조원에 비해 23.3% 증가하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은 5.1배로 '07년 5.99배보다 0.89배 포인트 감소
- '08년 1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경우에도 금융비용 증가로 이자보상배율이 전년에 비해 0.44배 포인트(9.42배→8.98배) 하락
- 기업의 현금성자산보다 차입금이 훨씬 빠르게 증가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08년말 현재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반면, 장기 및 단기 차입금은 52%, 86.3% 각각 증가
 - '08년 1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부채비율은 평균 88.4%를 기록, '07년 72.8%에 비해 15.6% 포인트 상승
- 매출부진에다 시중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마저 어려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금년 들어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우려로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대출의 만기연장도 버거운 실정
- 본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매출 증대와 현금성자산 확보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말 기준 621개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8.5% 수준이나, 기업들은 현금성자산의 적정 수준에 대해 75%가 10% 이상으로 응답, 향후 현금성 자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매출 증대(35.4%)와 현금성자산 확보(29%)를 기업의 최대 역점과제로 제시
-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은 대내외 경제여건, 배당정책, 자금조달 여건, 재무구조, 설비 투자 규모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해당기업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임
 - 단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용될 경우 기업전체의 재무 리스크가 확대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음

<기업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지표 현황>

	2007	2008	비고
상장사 사내유보금	367.5조원	418.6조원	'08년 사내유보금대비 현금성자산 비중 : 18%
상장사 현금성자산	66.6조원	75.2조원	
상장사 단기차입금	30.3조원	57.1조원	88.4% 증가
상장사 장기차입금	30.3조원	36.9조원	21.8% 증가
상장사 총차입금	60.6조원	94조원	55.1% 증가
상장사 현금성자산/매출액	9.3%	8.5%	0.8%p 감소
상장사 현금성자산/차입금	0.91배	1.25배	0.34배p 상승
제조업 영업활동 현금수입(업체당 평균)	335억원(1~9월)	285억원(1~9월)	14.9% 감소
제조업 현금흐름보상비율*	87.5%(1~9월)	57.1%(1~9월)	30.4%p 하락
상장사 영업이익	57.5조원 (10대 그룹 : 28.4조)	56.3조원 (10대 그룹 : 32.4조)	2.1% 감소 (10대 그룹 : 14% 증가)
상장사 순이익	54.1조원 (10대 그룹 : 28.8조)	32조원 (10대 그룹 : 23.3조)	40.9% 감소 (10대 그룹 : 18.9% 감소)
상장사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5.99배 (10대 그룹 : 9.42배)	5.10배 (10대 그룹 : 8.98배)	0.89배p 하락 (10대 그룹 : 0.44배p 하락)
30대 기업 현금성자산**	38.7조원 (10대 기업 : 27.3조)	40.8조원 (10대 기업 : 29.6조)	5.3% 증가 (10대 기업 : 8.3% 증가)
30대 기업 장기차입금**	7조원 (10대 기업 : 1.5조)	10.7조원 (10대 기업 : 3.4조)	52% 증가 (10대 기업 : 127.9% 증가)
30대 기업 단기차입금**	9.7조원 (10대 기업 : 4.3조)	18.2조원 (10대 기업 : 9.2조)	86.3% 증가 (10대 기업 : 113.2% 증가)
10대 그룹 상장사 부채비율	72.8%	88.4%	15.6%p 증가

주 : * 현금흐름보상비율 = (영업활동현금수입+이자비용)/(단기차입금+이자비용)

** 제조업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 2000,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외

1. 최근 사내유보금 활용 주장 내용

- 최근 언론, 정치권, 노동계 등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최근 사내유보금 활용 주장 내용>

송희영(2.14 조선일보칼럼) : “550개 상장사들은 '08년 9월말 기준으로 393조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0~20%를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 필요”

박희태 대표(2.19 기자회견) : “여러분들의 회사에는 100조가 넘는 투자가능 자금이 있다고 들었음. 오늘 즉시 금고문을 열어주시기 바람”

조원진(2.20 환노위 여당간사) :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의 지퍼를 꼭 잠가놓고 열지 않으면 나중에 지탄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

민노당(2.23 논평) : “수백조가 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과 R&D, 신규사업 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으로 경제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노총(2.25 성명) : “대졸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초임삭감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내유보금을 풀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민노총(2.28 전국노동자대회) :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사내유보금으로 소득저하를 메워야”

2. 사내유보금 활용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1) 사내유보금 현황

-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 중 세금, 배당금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적립되는 자금을 말함
 - *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
- 2008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사내유보 규모는 418.6조원이며,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상장사 사내유보 현황>

(단위 : 조원, %, %p)

구분	2005	2006	증가(율)	2007	증가(율)	2008	증가(율)
사내유보금	308.4	346.9	12.48	397.54	14.60	418.63	5.31
유보율*	554.03	613.19	10.68	690.87	12.67	692.49	0.23

주1 : * 사내유보금/납입자본금

주2 : 2005년 588개사, 2006년 598개사, 2007년 604개사, 2008년 621개사 12월 결산 상장기업 기준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 2000

-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현금이 아니며, 국내 상장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의 80% 이상을 설비투자 등으로 기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상장사들은 '08년 말 현재 418.6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343.5조원을 이미 사용 중
 - ※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 내역
 - (기활용) 재고/채권, 설비투자, 지분투자, 차입금상환
 - (미활용) 현금성자산
- 사내유보금 중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자산*의 경우도 기업이 통상 원재료·부품 구입, 재고관리, 인건비 지급, 차입금 상환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임
 - 2008년 말 현재 국내 상장사의 현금성자산은 약 75.2조원으로, 전체 사내유보금(418.6조)의 18% 수준
 - *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화예금,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격변동위험이 없는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MMF, RP 등), 만기 1년 이내 단기 자금운용목적 금융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채권형상품 등)
 - '08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차입금 규모가 현금성 자산보다 1.25배 많은 94조원에 이르고, 이중 1년 내 갚아야할 단기차입금이 57.1조원에 달함

<상장사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 비교>

년도	상장사 차입금(A)	상장사 현금성자산(B)	A / B
2007	60.6조원	66.6조원	0.91배
2008	94조원	75.2조원	1.25배

주 : 2007년 604개사, 2008년 621개사 12월 결산 상장기업 기준

자료 : 한국상장사협의회 TS 2000

- 현금성 자산의 적정성은 기업·업종별 경기상황 및 자금사정 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는 연 매출액 대비 9% 내외 수준임
- '08년 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의 매출액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8.5%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하락

<상장사 매출액대비 현금성자산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현금성자산(A)	53.1	56.3	66.6	75.2
매출액(B)	616.2	654.9	714.2	886.5
A/B	8.6	8.6	9.3	8.5

주 : 2005년 588개사, 2006년 598개사, 2007년 604개사, 2008년 621개사 12월 결산 상장기업 기준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 2000

- 국내 현금성자산 보유 상위 6대 기업('08.9월 기준)의 '08년 말 현재 현금성 자산 규모는 21.1조원으로 '08년 3분기에 비해 18.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6개사 중 현대차를 제외한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5개사의 현금성자산 감소

<현금성자산 보유 상위 6개사 현금성자산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08.9(A)	2008.12(B)	B/A
삼성전자	7.1	5.7	△19.7
현대차	4.5	4.8	6.7
현대중공업	4.0	1.7	△57.5
LG디스플레이	3.7	3.3	△10.8
대한통운	3.3	3.1	△6.1
POSCO	3.3	2.5	△24.2
합 계	25.9	21.1	△18.5

주 : '09.3월 현재 자료가 제출된 현금성 자산보유 상위 6개사('08.9월 기준)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 2000

2) 사내유보금 활용 애로요인

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 저하

- 수익 감소, 매출채권 회수 곤란 등으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및 단기자금 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저하되고 있음
 - '08.1~9월중 제조업의 영업활동 현금수입은 당기순이익 감소,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감소
 - 건설업은 당기순이익 흑자에도 불구하고 공사 및 분양미수금과 미분양주택 등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나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 기록

<영업활동 현금수입(업체당 평균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7.1~9월				2008. 1~9월			
	제조업	전기 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영업활동 현금수입	335	4,115	-407	387	285	1,274	-676	325
(당 기 순 이 익)	237	1,938	335	266	214	256	324	160
(매 출 채 권 증 가)	73	-1,075	432	48	164	-1,248	506	101
(재 고 자 산 증 가)	53	159	55	29	192	1,416	225	57

주 : * 도소매업, 숙박업, 운수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서비스업 등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제조업 1,149, 건설업 76, 전기가스업 20, 서비스업 379 등 1,624개사 대상)

-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으로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08.9월 57.1%로 전년동기대비 30.4%포인트 하락

* 현금흐름보상비율 = (영업활동현금수입+이자비용) / (단기차입금+이자비용)

<현금흐름보상비율 추이>

(단위 : %)

2007.1~9월				2008. 1~9월			
제조업	전기 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87.5	111.7	-30.8	83.1	57.1	45.6	-32.1	60.3

주 : * 도소매업, 숙박업, 운수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서비스업 등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제조업 1,149, 건설업 76, 전기가스업 20, 서비스업 379 등 1,624개사 대상)

- 특히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상장법인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07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07년 대비 2.1% 줄어 들었으며, 순이익은 무려 40.9% 감소

<2008년 상장법인 영업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증감액	증감률
영업이익	575,288	563,121	△12,167	△2.11
순이익	541,034	319,839	△221,195	△40.88

주 : 12월 결산 상장법인 634사 중 비교 가능한 563사 기준(제조·비제조업 552사, 금융업 11사)

자료 : 한국거래소

- '08년 10대 그룹 계열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8.8%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전년대비 18.9% 감소

<2008년 10대 그룹 영업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증감액	증감률
매출액	3,640,195	4,324,959	684,764	18.81
영업이익	284,060	323,685	39,625	13.95
매출액영업이익률	7.80	7.48	△0.32	-
순이익	287,646	233,292	△54,354	△18.90

주 : 금융업 제외

자료 : 한국거래소

②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 경기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자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이자보상 배율이 하락함
- '08년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이자비용은 총 9.8조원으로 전년동기 7.9조원에 비해 23.3% 증가하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은 5.1배로 '07년 5.99배보다 0.89배 포인트 감소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2008년 상장법인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증감액	증감률
영업이익	476,023	499,761	23,736	4.99
이자비용	79,488	98,030	18,542	23.33
이자보상배율	5.99배	5.10배	△0.89배p	-

주 : 12월 결산 상장법인 634사 중 비교 가능한 552사 기준(금융업 제외)

자료 : 한국거래소

- '08년 1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경우에도 금융비용 증가로 이자보상배율이 전년에 비해 0.44배 포인트 하락

<2008년 10대 그룹 이자보상배율 현황>

(단위 : 억원, 배, 배p)

구분	2007년			2008년			이자보상 배율 증감
	영업이익	이자비용	이자보상 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이자보상 배율	
현대중공업	21,138	114	185.38	27,429	65	423.80	238.42
포스코	43,230	1,070	40.39	66,303	1,457	45.49	5.10
삼성	68,894	1,742	39.54	62,883	2,376	26.47	△13.07
롯데	13,023	464	28.08	10,832	457	23.68	△4.40
LG	44,632	5,381	8.29	60,543	4,234	14.30	6.01
GS	8,021	304	26.38	5,239	644	8.13	△18.25
현대자동차	36,213	6,019	6.02	49,736	7,674	6.48	0.46
SK	27,745	4,510	6.15	29,506	5,437	5.43	△0.72
금호아시아나	12,088	4,615	2.62	8,409	7,018	1.20	△1.42
한진	9,075	5,937	1.53	2,805	6,671	0.42	△1.11
10대그룹 계	284,060	30,157	9.42	323,685	36,033	8.98	△0.44

자료 : 한국거래소

- 기업의 현금성자산보다 차입금이 훨씬 빠르게 증가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08년말 현재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반면, 장기 및 단기 차입금은 52%, 86.3% 각각 증가
 - 10대 기업의 경우 '08년 장단기 차입금 증가율은 각각 127.9%, 113.2%로, 30대 기업의 차입금 증가율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

<10대 및 30대 기업의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증감률
현금성자산	10대	273,168	295,937	8.3
	30대	387,092	407,648	5.3
장기차입금	10대	14,850	33,849	127.9
	30대	70,380	106,999	52.0
단기차입금	10대	42,957	91,566	113.2
	30대	97,424	181,518	86.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08년 1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부채비율은 평균 88.4%를 기록, '07년 72.8%에 비해 15.6% 포인트 상승

<10대 그룹 상장사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p)

2007	2008	증감
72.82	88.37	15.55

자료 : 한국거래소

- 10대 그룹(금융업 제외) 중 '08년 부채비율이 하락한 곳은 금호아시아나 1곳뿐이며, 나머지 9개 그룹은 모두 전년대비 상승

<그룹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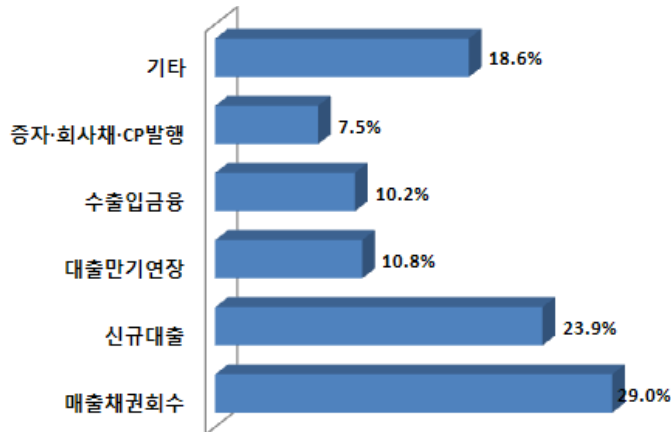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증감
삼성	49.04	67.50	18.46
현대차	86.05	90.95	4.91
SK	92.44	109.79	17.34
LG	69.53	73.17	3.64
포스코	24.69	34.00	9.31
롯데	39.32	41.92	2.60
현대중공업	178.82	314.18	135.35
GS	86.55	90.08	3.53
금호아시아나	183.03	165.18	△17.85
한진	191.00	270.70	79.70

자료 : 한국거래소

③ 매출부진 및 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 매출부진에다 시중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마저 어려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최대 애로는 매출채권 회수(29.0%)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규대출(23.9%), 대출 만기연장(10.8%), 수출입금융(10.2%)의 어려움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

<기업 자금조달 관련 최대 애로>



자료 : 전경련 600대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 금년도 매출 전망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절반 정도가 내수와 수출부진을 우려

<2009년 내수 및 수출전망>

내수				수출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50% 이상 감소	0.7%	불변	13.1%	50% 이상 감소	1.0%	불변	18.3%
40-50% 감소	1.0%	0-10% 증가	23.8%	40-50% 감소	1.9%	0-10% 증가	21.6%
30-40% 감소	4.2%	10-20% 증가	7.7%	30-40% 감소	5.6%	10-20% 증가	6.5%
20-30% 감소	11.4%	20% 이상 증가	2.2%	20-30% 감소	10.8%	20% 이상 증가	4.9%
10-20% 감소	15.4%	계	100%	10-20% 감소	12.1%	계	100%
0-10% 감소	20.5%			0-10% 감소	17.3%		

자료 : 전경련 600대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 '08년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16.8% 감소
- * 기업직접금융 규모(조원, 전년비증감률) : '06년 23.7 → '07년 39.5(67.1%) → '08년 32.9(△16.8%)

- 금년 들어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우려로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대출의 만기연장도 버거운 실정
 - * 대기업대출(말잔증감, 조원) : 3.8('08.10월) → 0.9(11월) → △2.8(12월) → 3.3('09.1월) → △1.3(2월)→△1.3(3월)
 - * '09.1월 대출증가는 '08.12월 일시상환분 재취급에 기인
- 회사채발행은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만 제한적으로 가능
 - * A등급 미만은 회사채발행이 어려우며, 건설업종 기업은 A등급이라도 회사채 발행이 곤란

<흑자기업 유동성 위기 및 도산 사례>

[태산엘시디(주)] 국내 대표적 LCD업계로 '08년 상반기 매출 3,441억, 영업이익 114억원의 실적을 보였으나, 키코계약 손실(270억)에 따른 유동성 어려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08.9)

[(주)우영] 코스닥 상장업체로 삼성전자 등에 LCD부품을 공급해 오면서 지난 10년간 흑자를 기록해온 우량기업이나, 무리한 설비투자 및 납품 물량 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도산('08.2)

[(주)신일] '06년 매출액 4,687억, 당기순이익 18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방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미수금(300억원대) 회수가 어려워 부도 처리('07.6)

④ 현금성자산 확보가 기업의 최우선 과제

- 본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매출 증대와 현금성자산 확보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말 기준 621개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은 8.5% 수준이나,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의 적정 수준에 대해 75%가 10% 이상으로 응답, 향후 현금성자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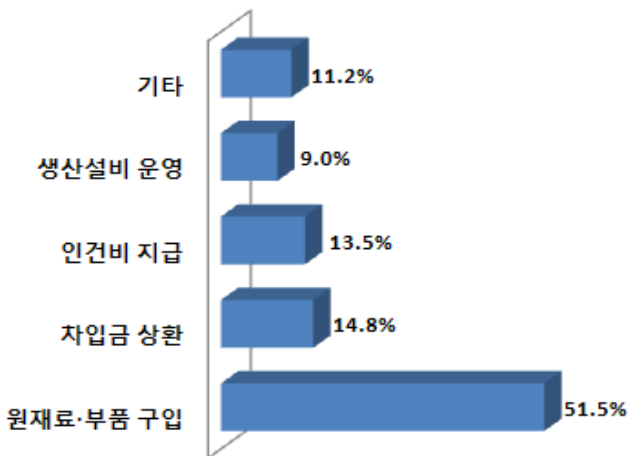
<매출액 대비 현금성 자산의 적정 수준>

구분	비율	구분	비율
6% 미만	10.4%	12%	4.7%
6%	5.7%	13%	2.2%
7%	3.0%	14%	0.8%
8%	4.2%	15%	8.5%
9%	1.7%	15% 초과	29.0%
10%	28.8%	계	100.0%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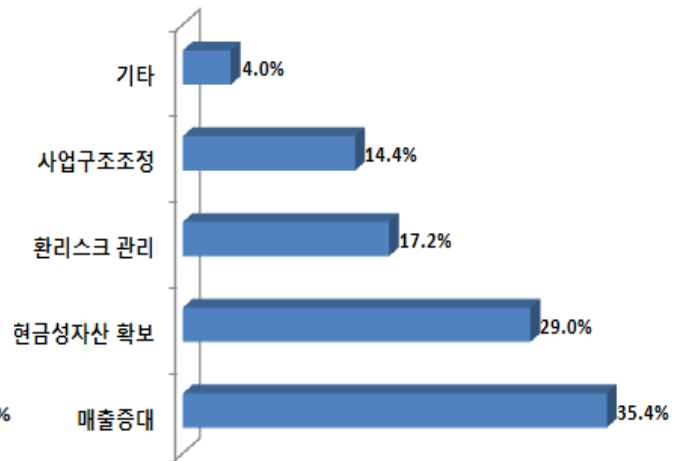
자료 : 전경련 600대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 기업들은 보유한 현금성자산을 원재료·부품 구입(51.5%), 차입금 상환(14.8%), 인건비 지급(13.5%), 생산설비 운영(9%) 등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매출 증대(35.4%)와 현금성자산 확보(29%)를 기업의 최대 역점과제로 제시

<현금성자산의 주요 사용용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점과제>



자료 : 전경련 600대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3. 사내유보금 활용 주장에 대한 입장

-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은 대내외 경제여건, 배당정책, 자금조달 여건, 재무구조, 설비투자 규모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해당 기업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임
 - 단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용될 경우 기업 전체의 재무리스크가 확대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음
-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600대 기업이 8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대기업들이 최대한 지난해 투자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된 것임
 - * 전경련 조사결과, 올해 600대 기업의 투자계획은 86.8조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09.2월)
 - * 600대기업 투자증감률 : 5.1%('07년, 75조원) → 18.6%('08년, 89조원) → △2.5%('09년, 87조)
 - * 산업은행 조사결과는 6.8% 감소(2,657개사 조사, '08.12월), 대한상의 조사결과는 30% 감소 (동 조사결과는 1,000여개 기업의 투자증감률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것임)
- 경제계는 대졸초임 삭감과 기존 임금 조정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신규 인턴채용에 노력 중임
 - * 지난 2.25 본회가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을 발표한 이후 30대 그룹은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36,719명)보다 43.3% 증가한 52,620명으로 확대